세계적인 미니어처 아티스트 '타나카 타츠야'의 전시 '미니어처 라이프 · 미타테 마인드(MINIATURE LIFE · MITATE MIND)'가 서울 여의도 MPX 갤러리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진다. 210만 이상의 누적 관람객과 380만 팔로워를 보유한 타나카 타츠야의 새로운 시리즈로, 서울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월드 프리미어 전시다.'미니어처 라이프 · 미타테 마인드'는 'HOME', 'FORM', 'COLOR', 'SCALE', 'MOTION', 'LIFE', 'WORLD' 등 7가지 테마로 구성됐다.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52점의 오리지널 미니어처를 포함해 약 20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. 작가가 직접 작성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마련돼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. 이번 전시에선 일본어로 '보다(見る)'와 '세우다, 짓다(立てる)'의 합성어인 '미타테'의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다. 일본 고유의 미학적 개념인 '미타테 마인드'는 익숙한 사물을 새롭게 다시 보는 마음을 의미한다. 작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로 위트 있는 미니어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. 동그란 안경이 자전거가 되고,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웨딩드레스로 그려진다.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소개된 바 있다. 피버(fever) 앱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매 가능하며 현장 티켓 구매도 가능하다.